마블 비치와 시사이드 녹지

해변에는 하얀 대리석이 깔려 있고, 뒤쪽으로는 파란 소나무 숲이 이어집니다. 간사이 공항을 바라보면서 석양을 즐기기에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난카이 본선 '요시미노사토' 역에서 도보 15분. 또는 난카이 공항선, JR 간사이공항선 '린쿠타운' 역에서 도보 15분.

임해 국제 시골 마을

비롯하여 다지리 어항, 일요일 아침시장과 어업 해변, 역사 문화가 넘치는 즐길 거리가 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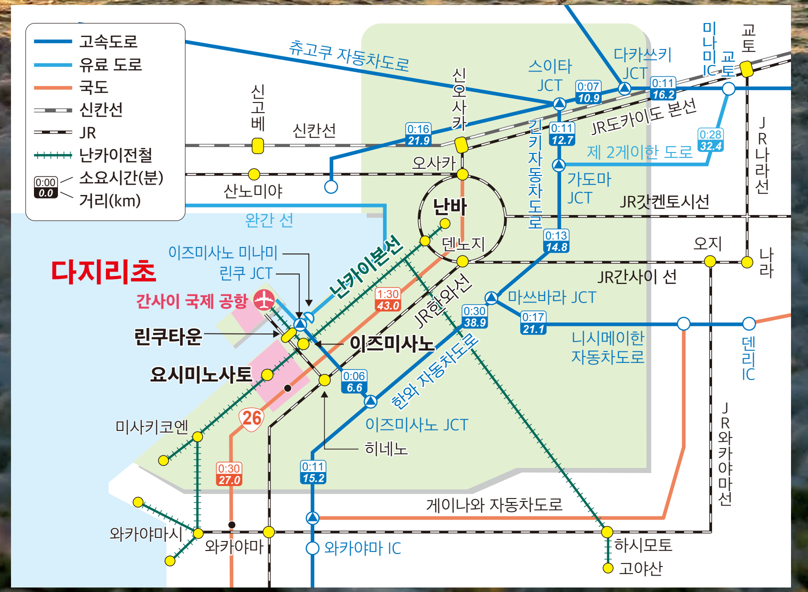
다지리초
마스코트 캐릭터
"TAJIRICH"

작은 거리에 커다란 매력

다지리초는 오사카부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5.62km², 인구 약 8,700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의 중앙부가 다지리초에 속해 있어서 공항 섬을 제외한 실질적인 면적은 2.35km²로 일본에서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그렇게 작은 마을이지만 옛날부터 농업과 어업이 활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센슈 양파는 다지리초가 재배 발상지로 알려져 있으며, 19 세기 후반에는 마을 곳곳에 방적 공장이 입지하여 눈부신 산업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94년 간사이 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임해부에 린쿠 타운이 정비되어 '사람들은 활기에 넘치며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인정 넘치는 매력있는 거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낮과는 또 다른
낭만적인 석양
포인트

다지리초 | (우)598-8588 오사카부 센난군 다지리초 가쇼지 375-1
TEL: 072-466-1000 FAX: 072-466-8725
http://www.town.tajiri.osaka.jp/

韓国語

작은 거리에 커다란 매력

다지리초

Tajiri Town

관광 안내 지도

바다와 간사이 공항이 있는 마을

바다와 간사이 공항이 있는 마을

마음에 남는

다지리초는 규모가 작지만, 간사이 국제공항을 체험, 낚시터와 바비큐 시설, 아름다운 바다와

다지리 스카이 브리지

다지리 어항에 가로놓인 전장 338.1m, 폭 26.3m, 차도 4차선, 높이 110m로 일본에서도 규모가 큰 사장교이며 경관도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으므로 5km 떨어진 앞바다의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 기분 좋게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난카이 본선 '요시미노사토' 역에서 도보 15분. 또는 난카이 공항선, JR 간사이공항선 '린쿠타운' 역에서 도보 15분.